

유아의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II)

-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Music Lesson and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Musical Abilities and Musical Conservation Concept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보조연구원 : 田 仁 玉

Institute of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Researcher : Jeon In Ock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 음악교육론 2. 음악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 3.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 4. 연구문제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V. 결과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이 유아의 음악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2.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이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 lesson and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musical abilities and musical conservation concepts. Two kinds of tests aiming to measure musical abilities and musical conservation concepts were administered to 117 children aged 5- to 7-year-old. The amount of music lesson at home was investigated, and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at two preschools were observed and then evaluated in terms of their qual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he individual music lessons at hom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young children's musical abilities and musical conservation concepts.
- 2) Young children's musical

abilities and musical conservation concept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Especially, the quality of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listening, rhythmic activities, and musical creativity among musical abilities. As to musical conservation concepts, only tempo conservation concept was affected by the quality of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The balanced activities in the five domains of music education were discussed. Some suggestio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music education were provided.

I. 서 론

종래의 음악교육이 정서교육의 일부분으로서의 성향만을 강조하였던 점에 반발하여 1960년 이후부터는 음악의 개념을 중요시한 개념적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음악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법이란 모든 음악에 적용되는 음악의 기본개념을 추출하여 가르치는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 음악교육의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음악 교과과정은 기술연습 위주의 교수방법에서 개념적 접근법에 의한 음악 교수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념적 접근법에 의한 음악교과과정이란 본질적으로 학생중심, 경험중심, 그리고 창조중심의 수업을 의미한다. Bruner(1960)의 구조주의 교육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나선형 음악교육과정안인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와 여러 음악교육과정안 등을 종합하여 1981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은 그 기본개념을 리듬, 가락, 화성, 음색, 빠르기, 셈여림 등 7가지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김애경, 1984).

이러한 음악교육의 개념적 접근법에 발맞추어 유아의 음악 기본개념 교육 또한 유아를 중심으로 경험과 환경을 구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음악성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신체적, 정의적, 인지 및 언어, 창의적 발달특성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음악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음악성 발달과 그에 적절한 음률활동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김영희, 1982; 장현아, 1990; 최영숙, 1982), 음률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가 아직 미흡하고 연구결과가 음률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으로 Piaget의 보존원리를 이용하여 아동의 음악적 사고에 있어서 보존단계를 추적한 연구가 Pflederer(1964)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래로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의 연구는 연령이 청각인식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늦어도 3학년까지는 학습정점에 도달하며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1~2학년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여 저학년에서의 음악교육의 지연이 다음 단계의 음악발달에 장애가 됨을 시사해왔다(Petzold, 1969). 그러나 음악적인 이해수준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지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관한 국내연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유애열, 1985; 정원영, 1988), 특히 음악교육의 영향을 연구한 것은 더욱 적은 실정이다(홍순정, 1977).

이러한 극소수의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음악 개념 보존의 발달이 외국에 비해 늦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환(1982)의 음악 교육과정의 비교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첫째,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이 노래부르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우리의 고유가락이 음악교육과정에서 너무 무시된 결과를 들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의 음악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노래부르기보다는 기악과 몸 움직임에 중점을 두며, 또 그들의 민속음악과 전통음악을 교과과정에 설정하여 음악의 형식에 관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음악교과과정의 비교분석은 유아 음악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래의 유아 음악교육은 기억을 통해서 유아에게 움직임의 감각을 배우도록 강조되어 왔으며 또한 리듬을 감지하거나 음을 구별하는 것을 훈련하기 전에 유아에게 악기연습을 강조하여 음악의 즐거움은 제쳐놓고 손가락의 연습, 독보, 음악의 지적 이해만을 강행하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움직임의 이해는 관찰과 비교의 직감을 훈련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움직임을 위한 감각은 울동을 통해 비로소 습득되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에서 음악과 울동을 통한 음물지도는 음악의 감수성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장현아, 1990). 다시 말하면 유아가 음악을 단순히 귀로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로 느끼도록 교육한다는 것으로 청각감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음의 울림이 근육감각을 통해 침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애열(1985)의 음악 보존개념 발달의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리듬과 리듬의 구성요소로서의 빠르기, 지속의 개념은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경험시키고 그 가운데서 습득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의 연구가 발달적 측면에서 극소수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의 음악교습이나 유치원내 음률교육과 같은 음악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음악성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학령기 아동에 국한되어 있고 유아들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을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음률활동 교수방법을 고려한 유치원내 음률활동으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유아를 위한 음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 음악교육론

Carl Orff는 음악의 주된 목적은 인간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全人教育을 주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유아 음악교육의 방법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① 유아들에게 언어, 동작, 노래는 통합적인 것이므로 유아들의 말과 동작을 음악적 경험의 바탕으로 사용할 것 ② 리듬과 멜로디를 음 전체로 느끼게 하고 음악적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것 ③ 음악의 기본요소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언어의 리듬형태에서 시작해서 리듬적인 경험을 주며, 극히 단순한 가락에서 시작하여 멜로디적인 경험을 주고 *Ostinato* 등의 연주에서 여러 가지 소리감각과 화성적인 경험을 하게 할 것 ④ 리듬적이고 멜로디적인 경험에서 음악적인 상상력과 즉흥연주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I 감각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창조성을 개발시키고 상상불 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참여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이경옥, 1988; 이 영, 유애열, 1985).

Zoltan Kodály는 무엇보다도 조기교육을 통한 독보력의 신장을 중요시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음악교육을 통한 미적 경험을 강조하였다(강미숙, 1981). Kodály 지도법은 여러가지 기법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이 기법 중에서 유아들의 음악성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만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말, 동작, 노래게임을 통한 리듬감각 ② 暗謠唱과 視唱을 통한 리듬감각 ③ 멜로디와 리듬의 동시활동을 통한 多音감각 ④ 민요와 가곡을 통한 음악양식과 음색의 인식 ⑤ 손(手)기호를 통한 청음력의 음악적 기술 ⑥ 모든 조와 음자리표의 이동에 대한 음악적 기술 ⑦ 배운 멜로디와 리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즉흥연주의 기술 ⑧ 계명창법의 노래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악적 기술이다. 이 기법들의 각 단계는 최소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어떤 단계를 건너뛰지 못한다고 하였

듯이 Kodály 음악교육과정은 유아의 음악성을 개발하는 단계가 체계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이경옥, 1988; 이영, 유애열, 1985).

Emile Jaques-Dalcroze는 어린이의 음악적 재능이란 어린이 자신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잠재적인 생득의 재능을 어떻게 어린 시절에 발전시킬 것인가에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 그는 신체적인 자유로운 움직임을 음악교육의 커다란 목표로 생각하여 음악적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을 신체운동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몸이 박자감인 리듬의 중요한 요소를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음악능력의 근원이며 인간의 공통된 감각인 유아의 생득적인 리듬감각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발전시켜 자유롭고 정신적으로 승화된 표현력으로 개발하는 것을 유아 음악교육으로 인식하였다(이경옥, 1988). 또한 이 생득적인 리듬감각이란 음악능력은 인간의 즐거움의 표현과 함께 언제나 정신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근육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근육조직을 훈련시킴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사고나 사상을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유덕희, 1983).

Maria Montessori는 유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할 것과 유아기의 감각교육을 강조하여 감각교육에 알맞은 시기(3세~6세)에 교육을 받아야 여러 감각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 감각교육은 유아들이 명확하고 강한 지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있는 준비라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유아의 주의집중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아들의 감각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달되도록 감각자극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이 감각교육의 영향에 의해 유아들이 명확하고 강한 지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교육원리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그 교육원리에 맞는 'Montessori 교구'를 제작하여 이를 통한 훈련으로 유아들의 주의 집중을 돕는 교육을 강조하였다(이순형·권미경, 1992). 이 중에서 음악교육 교구를 통한 Montessori의 음악교육은 유아들에게 맞는 교구의 제작으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듣고 노래부르며, 악기를 연주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유아들의

신경집중을 도와주고 있다는데 특색이 있다. 그리하여 음악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이 노래부르며,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스스로 창작표현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하였다.

Shinich Suzuki는 유아에게 알맞은 악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작은 유아용 바이올린을 제작한 것이 바이올린 재능교육을 성공으로 이끈 원인이라고 분석되기도 하지만(이강옥, 1977), 그보다 그는 유아교육에 'Suzuki Method'라는 특수방법을 적용하여 악기지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에는 음악재능의 대부분을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는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워나가듯이 음악적 재능도 후천적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다. Suzuki는 음악적 재능은 생후의 교육방법에 따라 발현되므로 그 잠재능력이 발휘되도록 도와야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재능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켜야 할 다섯가지 기본원칙으로 ① 조기교육 ② 거듭된 반복을 중시 ③ 교육적이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 ④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적용 ⑤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주장하였다(Suzuki, 1973).

2. 음악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

1) 듣기 능력의 발달

Nye(1975)는 유치원에서는 품질이 좋은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고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여 소리와 리듬을 발견하고 음을 묘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Garretson(1976)은 교사가 악기의 소리를 낸 후 소리가 큰지 혹은 부드러운지,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혹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인지를 유아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소리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묘사해 주는 음의 명칭에 관한 어휘를 소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낮은 남자의 음성과 높은 여자의 음성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낮은 음과 높은 음, 가벼운 음과 무거운 음의 차이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에 대한 변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곡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짧은 묘사곡은 유아용 표제곡으로

아주 좋은데 동화용 유아 음악은 대개 전래되어오는 동화를 기초로 작곡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세마리의 염소'의 경우 각 염소의 크기에 따라 음악표현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염소의 걷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독특한 악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김영주(1982)는 유치원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아들은 그들이 알고있는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음악을 듣고 곡의 표현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짧은 이야기로 된 표제음악이 유아들의 듣기능력의 발달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최영숙(1982)의 실험연구는 음에 맞추어 움직여 보는 창작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의욕과 음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의해 듣기 능력이 크게 신장됨을 보여주었다. 즉, 모든 유아 음악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진 능동적인 참여가 듣기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의 발달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더 보고 듣기를 원한다는 Piaget의 이론에 일치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결과는 음악적인 환경에서 유아들이 들은 것을 음악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듣기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노래부르기 능력의 발달

Kodály는 자신의 노래로부터 음악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어린이만이 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아노의 경우도 악기연주에 나름대로의 노래를 붙여 자유로운 자신의 음을 순수하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항상 권하였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스러운 악기로서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음악학습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며 독창보다는 합창이 교육상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유덕희, 1983).

Lorton과 Walley(1979)는 유아들은 노래부르기를 즐기며 말보다 노래를 통해서 더 감정전달을 잘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교사는 음률활동중에 "지금 손 셋을 시간입니다"라는 말 대신에 노래를 하면 더욱 호소력이 있고 유아들이 함께 노래로

응답할 때 더욱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유아들의 노래부르기 지도를 위해서는 우선 유아의 음역(tone range)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박인숙, 황명원(1980)과 이재임(1986)의 유아 음역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5~6세의 유아들은 G-C의 음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임(1986)은 넓은 음역을 가진 유아일수록, 또한 음악교습을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가락반응 능력이 높다고 결론지으면서, 유아의 성대는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없는 발성과 유아의 음역에 맞는 곡으로 노래하도록 하고 올림·내림장조의 변화곡으로 노래를 지도한다면 유아의 음역을 신장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높은 음을 불편해 하므로 낮은 음역의 노래를 좋아하며 낮은 높이로 시작된 노래를 쉽게 노래한다. 또한 음이 내려가는 것을 보다 쉽게 노래하며, 넓은 음 사이를 도약하는 것보다 순위적인 진행을 좋아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을 사용한 노래나 반음씩 움직이는 노래는 어려워 한다(Lorton & Walley, 1979). 김영혜(1980)의 유아 애창곡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아들이 부를 노래의 선택은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을 포함하면서 음률의 반복이 많은 곡이 좋으며 가사는 내용이 단순하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음의 높낮이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것과 8~12 소절로 된 노래가 적당하다.

3) 리듬과 율동익히기 능력의 발달

Orff는 유아들의 생활에 있어서 언어(말), 동작, 놀이와 노래를 상호연결된 종합체로 보았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 방법에 자연적인 동작과 언어와의 관계, 노래와 동작과의 관계를 주로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는 유아들이 음악을 지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신체적인 경험으로 습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음악적 감각을 개발시키는 것을 유아 음악교육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유아들이 가능한 한 많은 음악활동에 참여하여 음악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아가 능동적인

음악행위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자발적인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리듬중심의 악곡을 바탕으로 리듬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였는데 말의 리듬근원을 찾아 리듬을 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말의 억양, 강약, 장단, 소리의 높고 낮음을 리듬에 붙이도록 해서 자연스런 멜로디 작성법을 지도하고 유아로 하여금 리듬감을 물론 창작력, 상상력, 협동심도 길러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Kodály는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리듬감 지도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리듬기호나 그림을 통한 리듬쫄의 장단에 따라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며 음표의 기둥만을 나타내는 리듬기호를 사용하였다(김은호, 1980). 이와같은 리듬기호를 바탕으로 리듬응답 놀이를 할 수 있고, 리듬말에 대해 기보할 수 있도록 첫째, 노래말을 통한 리듬인식, 둘째, 리듬말을 통한 리듬인식, 세째, 막대기로 책상등에 리듬치기, 네째, 악센트를 넣은 리듬치기, 다섯째, 리듬응답 놀이를 통한 리듬치기의 다섯단계를 만들 수 있도록 단계별 리듬지도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Dalcroze는 유아들이 자기의 개성을 인식하게 되며, 그들의 특수한 리듬으로 구속에서 해방되어 정신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상상력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관계를 음악교육을 통하여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신체운동을 통한 유아들의 리듬교육을 주장하였다. 그가 규정하는 생得的인 리듬이란 生理的 리듬으로서 이는 '생명의 리듬'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그는 인간의 근원적 요소의 하나인 '생명의 리듬'을 음악능력으로서 끌어내기 위한 근육의 훈련을 주장하고 유아를 그의 음악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Dalcroze는 음악의 감각은 근육감각이며 그 기초는 '움직임과 리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음악예술의 기초는 리듬이며 이 리듬에 대해서 근육적 감각이 반응하였을 때에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는 유아기의 음악교육은 자기 나라의 음악문화 교육의 기초적 시기로서 음악적 감각기능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음악적 감각을 기르고 온 몸을 음악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각과 감동을 풍부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입문기인

유아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이경옥, 1988). 또한 그는 유아가 흥미를 갖는 묘사적인 교재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음악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지도를 할 것이며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로 느끼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은 일정한 움직임의 유형을 강조하거나 전원이 똑같은 획일화된 표현이나, 비설화적인 소재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유아 자신의 생활경험, 생활감정을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온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숙(1982)은 리듬발달에 있어서 리듬의 근원을 신체에 두고 몸을 하나의 음악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을 때, 유아들은 신체의 움직임의 즐거움을 통하여 쉽게 리듬을 이해하는 것을 발견하여 Dalcroze의 신체운동을 통한 리듬교육의 효과를 증명해 주었다.

4) 악기다루기 능력의 발달

Orff는 기구나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몸과 손발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소리를 통해 리듬을 먼저 가르친 후 음의 고저가 없이 단순한 소리를 내는 리듬악기의 사용법을 지도하고 점차 연주법이 간단한 멜로디 악기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간단하게 제작하여 유아들이 연주하기 쉽고, 질적으로 우수한 음질을 지니고 있는 악기를 고안하였다. 또한 합주를 통하여 음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들에게 최대한의 음악적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Orff는 유아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타악기를 개조하고 그 악곡을 만들어서 순진성과 즐거움을 북돋우어 주는 것을 유아 음악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강미숙, 1981; 이경옥, 1988).

Suzuki의 악기지도방법은 유아의 심리에 맞게 유아의 모방욕구를 레코드 들기와 충분한 반복으로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통한 학습방법으로 매우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는 어머니를 항상 집에서 유아의 학습을 돕고 함께 연습하며, 격려함으로써

음악적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사로 보았으므로 특유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창하였다.

유아의 악기지도를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음악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음악코너를 유치원 교실의 조용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유로이 소리를 실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음악코너가 소란을 피우고 노는 장소가 아닌 여러가지 악기의 소리를 체험하고 실험해보는 장소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즐겁게 연주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놀이와 신체표현과 연관된 기악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은 주입식 교육을 통한 악기지도보다는 음악적 환경을 먼저 마련해 주어 유아들이 자유롭게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유아들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창조하면서 음악을 즐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5) 음악적 창의성의 발달

Dalcroze는 인간의 신체를 오케스트라의 樂器群으로 비유하고 이 악기군으로써 충분한 표현을 하는 것이 예술적 표현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란 음악에 대하여 오케스트라화하여 소리내고 울리고 할 때 비로소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표현이 자연히 풍부해진다는 것이며 이러한 음악표현의 규칙은 인간의 기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유아에게 강한 개성을 길러주기 위한 음악의 창조성 개발을 주장한 Orff의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 한 예로 최영숙(1982)의 실험연구는 유아 자신의 사고와 아이디어에서 나온 독창적인 것과 자기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 격려해 주는 것이 창의력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혜란(1988)은 실험집단 37명과 비교집단 42명의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활동중심의 음악지도가 유아의 다섯가지 영역의 음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장실험하였다. 그 결과, 유아활동중심의 음악지도가 기존의 음악지도보다 동성내에서 또는 성별로 유아의 음악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으며, 동일 연령내에서도 유아활동중심의 음악지도가 기존의 음악지도보다 유아의 음악

능력을 신장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연령별로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였을 때에는 유아활동중심의 음악지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만수(1991)는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적 음률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무선표집된 창의적 질문집단 18명과 재생기억적 질문집단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기억재생적 질문이 음률활동 수업현장에서 일문일답의 형태로 전개되는데 반해 창의적 질문에 의한 수업이 일문다답의 형태로 전개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사의 질문유형에 따른 교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 질문집단의 유아들이 재생기억적 질문집단의 유아들보다 음률교육과정에서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창의적 표현능력을 증진시킴을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교사가 음률활동 진행시 재생기억적 질문보다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면 유아의 동작표현이 더 다양해지고 더 지속적인 표현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음률활동시 유아들의 다양한 흥미, 경험, 느낌, 생각 등을 나타내게 하는 교사의 창의적 질문이 유아의 창의적 표현능력을 다양하게 하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3.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을 연령과 인지발달과 관련지어 본 것들인데 반해, 이들 연구와는 달리 음악 보존개념 발달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들은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을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Foley(1975)는 음정형식과 리듬패턴의 보존에 대한 훈련효과를 보기 위하여 국민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시간 중 10분씩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음정과 리듬의 보존개념의 발달에 의의있는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Zimmerman(1967)도 음악 보존개념의 연령별 발달의 연구와 아울러 훈련을 통한 실험효과를 분석한 결과, 훈련은 5세, 7세, 9세, 13세의 아동

중에서 5세와 7세의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결론지으면서 아동에게 친밀한 음악 즉, 아동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노래를 통한 음악적 구조에 대한 교수와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Zimmerman과 Sechrest(1970)도 청음력 보존을 훈련시킨 후 단기간의 훈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5세, 7세, 9세, 13세의 아동 198명을 대상으로 하여 4가지 음악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Foley(1975)의 결과와는 달리 훈련에 따른 의미있는 보존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이 결과는 여러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적 개념과 요소가 함께 섞여 구분되지 않은 채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음의 조화(harmony), 음조의 곡선(contour), 음정(interval), 선법(mode), 빠르기(tempo), 악기(instrument), 음고(pitch) 그리고 리듬(rhythm) 등이 함께 구분되지 않고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연령분포가 너무 광범위하여 연령에 의한 발달적 영향으로 보존훈련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분야에서 밝혀진 보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방법이나 절차들이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홍순정(1977)은 무선표집된 국민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 320명을 대상으로 청음력 및 창작의 기초기능 학습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보존개념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들이 음악학습에 적용될 수 있고 이 보존개념 습득원리를 적용한 프로그램에 의해 청음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음악적 개념 즉, 음정, 리듬, 청음력, 박자 등의 발달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도 훈련효과에 있어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홍순정의 연구에서는 청음력의 보존이 훈련을 통해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한 반면에 Zimmerman과 Sechrest의 연구에서는 훈련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4.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의 연구문제가 상정되었다.

1) 유아가 받은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은 유아의 음악능력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유치원의 음악교습은 유아의 음악능력의 어떠한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유치원내 음률교육은 유아의 음악능력의 어떠한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유아가 받은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은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유치원의 음악교습은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어떠한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유치원내 음률교육은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어떠한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가 받고 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이 유아들의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에서 교육경제 수준이 유사한 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11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므로 음악능력과 음악보존개념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은 5~6세의 유아반과 6~7세의 유치반의 두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연령집단별 유아의 성과 월령의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199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한 생년월일에 의거하여 산출된 대상유아의 평균월령은 유아반의 경우 58개월(4세 10개월)이고 유치반의 경우에는 69개월(5세 9개월)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받고 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 정도,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 음악능력 검사와 음악 보존개념 검사가 측정도구로 사용되

었다.

1) 유아가 받고 있는 음악교습 정도

유아가 유치원외에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음악 교습 기간은 '경험없다'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2) 유치원내 음률교육 과정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은 크게 음률교육의 양과 질의 두 측면을 고려하였다. 음률교육내용의 양적인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2년 3월 2주부터 6월 2주까지 14주동안의 유치원 음률교육안을 사용하였다. 음률교육의 5가지 영역인 듣기, 노래부르기, 율동과 리듬익히기, 악기다루기, 창의적 표현으로 나누어 음률교육 내용을 두 연구원이 따로 분석한 결과, 두 분석자의 내적 일치도는 98% 이었으며 분석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담당교사와 논의 하여 해결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음률교육내용은 음률활동의 수가 각 유치원과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므로 상대적인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 음률교육의 반별로 전체 음률활동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였다.

유아 음률교육과정의 질적인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집단별로 아동학 전공의 두 명의 연구원이 매주 1회씩 각 유치원의 연령집단별 음률교육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음률활동 교수방법중 교사의 질문유형(재생기억적/창의적 질문유형)과 음률활동의 유형(교사중심/유아중심)을 조사하였다. 그 관찰내용을 토대로 교사의 질문유형이 창의적이고 유아중심인 음률활동 집단은 '우수'한 집단으로, 유아의 질문유형이 재생기억적이고 교사중심인 음

률활동 집단은 '저조'한 집단으로 평가하여 음률 교육과정의 질을 연령집단별로 상·하로 상대평가 하였다.

3) 음악능력 검사

Lorton과 Walley(1979)가 제시한 음악교육의 5개 영역인 듣기, 노래부르기, 율동익히기, 악기다루기, 음악적 창의성의 문항과 Crook(1979)이 제시한 문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30문항을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약간 수정한 후 본 연구의 음악 능력을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음악능력 검사는 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로서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듣기 11문항, 노래부르기 4문항, 율동과 리듬익히기 5문항, 악기다루기 5문항, 음악적 창의성 5문항으로서 '전혀 못한다(1점)'에서 '매우 잘한다(5점)'의 5점 척도형으로 채점되었다. 이렇게 채점된 음악능력 검사는 다섯 영역별로 합산 되었다.

음악능력 검사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채점된 것을 각 영역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듣기 영역이 .86, 노래부르기 영역이 .70, 율동 및 리듬익히기 영역이 .78, 악기다루기 영역이 .71, 음악적 창의성이 .86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각 영역별 신뢰도는 .70~.86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음악 보존개념 검사

음악 보존개념 검사는 Rider(1978)가 개발한 M-PACD (Musical Perception in the Assessment of Cognitive Development) 검사를 번안한 후 사용한 유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 월령의 분포

연령집단별 변인	구 분			계
	남 아	여 아		
반별/성별				
유아반	31(56.4)	24(43.6)		55(100)
유치반	27(43.5)	35(56.5)		62(100)
반별/월령별	48~60개월	60~72개월	72~84개월	
유아반	34(61.8)	21(38.2)		55(100)
유치반		41(66.1)	21(33.9)	62(100)

괄호밖(N) 괄호안(%)

애열(1985)의 음악 보존개념 검사를 참고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유아들의 수준에 맞도록 쉬운 용어와 신체를 이용한 측정도구로 수정하였다. 이 검사는 음악적 개념 중 리듬, 음표의 수, 빠르기, 지속의 네가지로 구성된 청각검사로, 검사문항과 녹음된 악기의 연주를 듣고 면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악기 선정에 있어서 본 연구는 유아들에게 가장 익숙하며 음색의 변별력이 높은 피아노와 우드 블럭(틱탁 블럭)을 선택하였고, 곡 선정은 유아들에게 익숙한 '산토끼'로 정했다.

유아를 위한 음악 보존개념 검사는 예비질문 5 문항, 리듬과 음표의 수의 보존 각각 2문항씩, 빠르기와 지속의 보존 각각 4문항씩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 보존개념 검사의 문항에 따라 '같다'는 응답은 3점, '빠르다'·'느리다' 또는 '많다'·'적다'를 2점과 1점으로 채점하였고, 응답의 이유에 대한 채점은 합당하고 논리적인 경우 3점, 논리적이되 감각에 의한 판단인 경우에는 2점,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감각에만 의존한 이유는 1점을 주었다. 이렇게 채점한 후 리듬, 음표의 수의 보존의 문항은 총점이 2~3인 경우에는 비보존, 4~5인 경우에는 과도기, 6점인 경우에는 보존으로 분류하였고, 빠르기 보존과 지속의 보존의 문항은 총점이 4~6인 경우 비보존, 7~9인 경우 과도기, 10~12인 경우 보존으로 분류하였다. 이 음악 보존개념 검사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계수를 구한 결과 리듬의 보존은 .70, 음표의 수의 보존은 .65, 빠르기의 보존은 .80, 지속의 보존은 .78로 산출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선정된 조사집단인 두 유치원에서 연구자와 훈련을 받은 네 명의 아동학을 전공한 검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고 연구문제에 따라서 t 검정과 χ^2 검정, 일원 변량분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을 유치원의 음악교습정도와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남아와 여아간의 음악교습을 받는 정도는 유의한 성차를 보여주어($\chi^2=27.94$, $df=2$, $p<.001$), 유치원의 음악교습을 받는 정도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음악교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들이 받고 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 정도는 유치반의 유아들이 유아반의 유아들보다 음악교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연령집단별로 음악교습을 받는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chi^2=20.14$, $df=2$, $p<.001$). 이 결과는 유아가 받는 음악교습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성차와 연령간의 유의한 차를 보고한 김영희(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능력의 발달과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음악교육에 의한 영향만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연구문제를 유아반과 유치반으로 나누어 연령집단이 통제된 채로 음악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1.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이 유아의 음악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전체 음악능력은 듣기, 노래부르기, 율동하기, 악기다루기, 음악적 창의성의 다섯 영역의 합으로 산출되었는데, 유아의 전체 음악능력에 대한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의 질에 의한 영향을 유아반과 유치반으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유아반의 경우 음악교습($F=6.96$, $p<.01$)과 음률교육의 질($F=4.49$, $p<.05$)은 모두 주효과가 있으나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의 질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의 음악교습을 많이 받을수록, 유치원내 음률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반 유아의 전체 음악능력이 증진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 3의 하단에서 보여주듯이 유치반의 경우에는 음악교습(F=5.58, p<.01)은 주효과가 있으나 음률교육(F=.36, p>.05)은 주효과가 없으며 음악교습과 음률교육간의 상호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내 음률교육의 질에 관계없이, 유치원의 음악교습을 많이 받을수록 유치반 유아의

전체 음악능력이 증진됨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연령집단별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유치반보다 유아반에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고 이 점은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음악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Orff와 Kodály, Suzuki 등의 전반적인 유아 음악교육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표 2. 성·연령집단별 유아들이 받고 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

		유치원의 음악교습			
유아의 성	경험없다	1년 미만	1년 이상	계	
남아	44(75.9)	11(19.0)	3(5.2)	58(100)	
여아	18(30.5)	22(37.3)	19(32.2)	59(100)	
$\chi^2=27.94^{***}$					
연령집단	경험없다	1년 미만	1년 이상	계	
유아반	41(74.5)	9(16.4)	5(9.1)	55(100)	
유치반	21(33.9)	24(38.7)	17(27.4)	62(100)	
$\chi^2=20.14^{***}$					

괄호밖(N) 괄호안(%) ***p<.001

표 3. 유아의 전체 음악능력에 대한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의 이원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유아	음악교습		2227.038	2	1113.519	6.96**		
	음률교육의 질		719.022	1	719.022	4.49*		
	음악교습×음률교육		156.543	2	78.272	.49		
	오차		7842.025	49	160.041			
	전체		11351.527	54	210.213			
유치반	음악교습	N	M	(SD)	음률교육의 질	N	M	(SD)
	경험없다	41	86.122	(12.352)	음률교육-상	25	95.120	(16.526)
	1년 미만	9	102.333	(12.072)	음률교육-하	30	86.033	(11.251)
	1년이상	5	101.400	(19.034)	전체	55	90.164	(14.499)
	전체	55	90.164	(12.948)				
유치	Source	SS	df	MS	F			
	음악교습	2450.333	2	1225.166	5.58**			
	음률교육의 질	80.293	1	80.293	.37			
	음악교습×음률교육	69.889	2	34.944	.16			
	오차	12298.020	56	219.608				
유치반	Source	SS	df	MS	F			
	음악교습	2450.333	2	1225.166	5.58**			
	음률교육의 질	80.293	1	80.293	.37			
	음악교습×음률교육	69.889	2	34.944	.16			
	오차	12298.020	56	219.608				
유치반	Source	SS	df	MS	F			
	음악교습	2450.333	2	1225.166	5.58**			
	음률교육의 질	80.293	1	80.293	.37			
	음악교습×음률교육	69.889	2	34.944	.16			
	오차	12298.020	56	219.608				

*p<.05 **p<.01 ***p<.001

볼 수 있다.

1-1. 유치원의 음악교습이 유아의 영역별 음악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치원의 음악교습의 영향을 유아 음악능력의 각 영역에 대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여 주듯이 유아반 유아가 유치원의외에서 받고 있는 음악교습은 유아의 음악능력에서 리듬과 울동익히기($F=5.37, p<.01$), 악기다루기($F=19.61, p<.001$), 음악적 창의성($F=4.97, p<.01$)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교습에 의한 음악능력에의 교육효과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유치반의 유아가 유치원의외에서 받고 있는 음악교습은 유아의 음악능력에서 노래부르기($F=3.27, p<.05$), 악기다루기($F=12.90, p<.001$), 음악적 창의성($F=3.37, p<.05$)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음악교습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반의 음악능력이 여러 영역에서 증진된다는 이 결과는 음악교습과 유아 음악능력의 관계를 연구한 김영희(1982), 신인숙(1987)과 유

영자(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가 유아기에 음악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악교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고 있는가만을 조사한 결과로 음악교습의 교습내용과 교수방법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이상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유아 음악교육의 適期教育이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음악교습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었다고 본다.

1-2. 유치원내 음률교육이 유아의 영역별 음악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듣기, 노래부르기, 리듬·울동 익히기, 악기다루기, 창작·표현활동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된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의 영역별 음률활동의 수는 유치원의 음률활동안의 분석을 통하여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래부르기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음악적 창의성이나 동작표현을 위한 창작표현의 음률활동은 10% 내외로 그 비율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 유치원의 음악교습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치원의 음악교습	연령집단별 유아의 음악능력				
	듣기 M(SD)	노래부르기 M(SD)	울동익히기 M(SD)	악기다루기 M(SD)	음악적 창의성 M(SD)
유아반					
경험없다	41 35.37 (6.40)	12.00 (2.20)	14.22 (2.62)	12.02 (2.39)	12.51 (3.86)
1년 미만	9 40.11 (4.96)	13.33 (2.12)	17.00 (3.46)	15.44 (2.35)	16.44 (2.96)
1년 이상	5 36.80 (10.06)	13.40 (2.07)	17.40 (3.97)	18.40 (3.20)	15.40 (3.29)
	F=1.95	F=2.02	F=5.37**	F=19.61***	F=4.97**
유치반					
경험없다	21 38.38 (6.38)	11.81 (2.73)	16.05 (3.25)	13.90 (3.06)	11.62 (3.11)
1년 미만	24 42.92 (5.08)	13.33 (2.32)	17.42 (2.69)	17.29 (3.03)	13.88 (3.37)
1년 이상	17 40.71 (8.05)	13.82 (2.77)	18.41 (3.08)	19.00 (3.54)	14.29 (4.18)
	F=2.78	F=3.27*	F=3.01	F=12.90***	F=3.37*

* $p<.05$ ** $p<.01$ *** $p<.001$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유치원 음악교육의 실태를 분석연구한 조현숙(1990)의 결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김성환(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음률활동이 노래부르기와 율동 따라하기 위주의 교사 주도의 음률교육이 주도적이며 음악적 창의성이나 동작표현을 권장해주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조사된 유치원내 전체 음률활동의 수는 연령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각 영역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 영역은 듣기와 창작·표현활동으로 듣기와 창작·표현활동이 많을수록 리듬·율동활동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이 음률활동의 내용이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통해 음률교육과정이 교육 프로그램의 구

조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은혜(1992)의 유치원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에 관한 종단적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교사주도 또는 아동중심의 음률교육활동의 유형은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화에 따라 결정되며 음률교육활동의 유형에 따라 유아들은 다른 음률교육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음률교육과정의 질이 평가되었다.

음률교육의 질에 의한 음악능력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유아의 음악능력을 연령집단별로 평가된 음률교육의 질에 따라 t 검정하여 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유아반의 경우에는 음률교육 과정의 질이 우수한 집단일수록 듣기의 음악능력이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t=3.88, df=53, p<.001$), 유치반의 경우는 율동의히기($t=3.79, df=60, p<.001$)와 악기다루기($t=3.76, df=60, p<.001$)

표 5.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에 따른 유아의 음악능력의 발달

반별 유치원내 음률활동 수	음률활동 영역					계
	듣기	노래	리듬/율동	악기	창작/표현	
유아반 1	10(14.7)	28(41.2)	7(10.3)	15(22.1)	8(11.8)	68(100)
유아반 2	10(19.2)	20(38.5)	10(19.2)	2(3.8)	10(19.2)	52(100)
유치반 1	3(4.5)	30(44.8)	10(14.9)	18(26.9)	6(9.0)	67(100)
유치반 2	11(17.5)	29(46.0)	4(6.3)	12(19.0)	7(11.1)	63(100)

괄호밖(N) 괄호안(%)

표 6.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의 질에 따른 유아의 음악능력의 발달

유치원내 음률교육 과정	N	유아의 음악능력				
		듣기 M (SD)	노래부르기 M (SD)	율동의히기 M (SD)	악기다루기 M (SD)	음악적 창의성 M (SD)
유아반-상	25	39.68 (7.08)	12.88 (2.42)	15.56 (3.75)	12.80 (3.79)	14.20 (4.30)
유아반-하	30	33.43 (4.82)	11.90 (1.97)	14.47 (2.42)	13.47 (2.64)	12.76 (3.59)
		$t=3.88^{***}$	$t=1.66$	$t=1.30$	$t=.77$	$t=1.35$
유치반-상	32	40.66 (6.71)	12.78 (2.64)	18.41 (2.18)	18.19 (2.81)	12.53 (3.69)
유치반-하	30	40.90 (6.63)	13.13 (2.76)	15.83 (3.27)	14.93 (3.95)	13.97 (3.54)
		$t=.14$	$t=.51$	$t=3.79^{***}$	$t=3.76^{***}$	$t=1.56$

* $p<.05$ ** $p<.01$ *** $p<.001$

영역의 음악능력이 유의하게 신장됨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이 유아의 음악능력중 노래부르기과 창의성 두 영역이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음률활동의 질에 따라 유의하게 신장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 것은 각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이 대체적으로 노래부르기 활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전체 음률활동의 40% 정도), 창의적 표현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때문으로(전체 음률활동의 10% 정도) 분석된다.

음률교육의 질에 따라 유아반인 경우에는 듣기 능력이 신장되고 유치반의 경우는 울동익히기와 악기다루기 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의 결과는 음률교육과정의 질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변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반일수록 음악능력에서 듣기 능력에 영향이 크고, 유치반이 되면 움직임을 통한 리듬익히기와 악기연주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음률교육과정의 질의 평가기준으로 다시 설명될 수 있다. 즉, 음률교육활동의 제시방법중 교사의 질문유형이 기억재생적이기 보다는 창의적일수록 유아 음악능력이 보다 발달됨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질문 유형이 창의적일수록 유아의 창의적 표현활동이 신장됨을 밝힌 이만수(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사주도보다 유아중심의 음률활동집단에 속한 유아의 음악능력이 보다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중심의 구조화된 음악교육 프로그램보다 유아중심의 음악지도가 동일연령내에서 유아의 음악능력을 신장시킴을 밝힌 김혜란(1988)과 허순희(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유치원내의 유아 음률교육과정의 영향을 음률활동의 수에 의한 양적인 면과 음률활동 교수방법에서 교사의 질문유형과 음률활동 유형에 의한 질적인 면을 분석해 볼 때 유아 음률교육활

표 7. 유아의 전체 음악 보존개념에 대한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의 질의 이원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유아	음악교습		195.404	2	97.702	3.92**	
음률교육의 질		132.016	1	132.016	5.30*			
음악교습×음률교육의 질		26.661	2	13.330	.59			
오차		1220.075	49	24.899				
전체		1535.745	54	28.440				
반	음악교습	N	M	(SD)	음률교육의 질	N	M	(SD)
	경험없다	41	26.585	(5.109)	음률교육-상	25	26.080	(4.949)
	1년 미만	9	29.333	(5.244)	음률교육-하	30	28.700	(5.428)
	1년이상	5	31.800	(5.357)				
	전체	55	27.509	(5.149)	전체	55	27.509	(5.216)
	Source		SS	df	MS	F		
	유치	음악교습		356.824	2	178.412	5.86**	
음률교육의 질		158.725	1	158.725	5.21*			
음악교습×음률교육의 질		26.285	2	13.142	.43			
오차		1706.092	56	30.466				
전체		2193.871	61	35.965				
반	음악교습	N	M	(SD)	음률교육의 질	N	M	(SD)
	경험없다	21	27.429	(4.976)	음률교육-상	32	29.00	(5.105)
	1년 미만	24	30.792	(5.846)	음률교육-하	30	31.60	(6.647)
	1년이상	17	33.000	(6.176)				
	전체	62	30.258	(5.662)	전체	62	30.258	(5.901)

*p<.05 **p<.01 ***p<.001

동의 양도 중요하지만 음률교육 과정분석을 통한 질적인 면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유치원 음률교육활동을 구성하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아의 음악적 경험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에 의한 음률교육과정의 질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더 변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유아 음악지도법과 음악능력의 성취정도를 비교한 허순희(199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2.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이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전체 음악 보존개념은 리듬, 음표의 수, 빠르기, 지속의 네 영역의 합으로 산출되었는데, 유아의 전체 음악 보존개념에 대해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과정의 영향을 유아반과 유치반으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여주듯이, 유아반의 경우 음악교습($F=3.92, p<.05$)과 음률교육($F=5.30, p<.05$)은 모두 주효과가 있으나 음악교습과 음률교육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7의 하단에서 보여주듯이 유치반의 경우에도 음악교습($F=5.86, p<.01$)과 음률교육($F=5.21, p<.05$)은 모두 주효과가 있으며 음악교습과 음률교육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의 음악교습을 많이 받을수록, 유치원내 음률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유치반 유아의 전체 음악 보존개념이 증진됨을 보여주었다.

2-1 유치원의 음악교습이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가 받고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은 리듬, 음표의 수, 빠르기와 지속의 모든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리듬패턴의 훈련효과에 의해 의의있는 리듬의 보존개념 발달을 보고한 Foley(1975)의 결과와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을 위해 아동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한 음악교육 효과를 주장한 Zimmerman(1967)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와같은 음악교육의 영향력을 음악적 보존개념의 형성비율과 관련시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빠르기의 보존을 제외한 리듬, 음표의 수, 지속의 보존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유치원의 음악교습에 의한 음악 보존개념의 형성비율은 대략 8.5%, 과도기와 비보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형성비율은 각각 45~50% 정도로 나타났다. 이 비율로 미루어볼 때 아직 인지발달 단계가 전조작기에있는 유아기에서는 음악 보존개념 형성 비율이 낮은 편이며 음악교습을 통한 음악능력의 개발과 더불어 음악 보존개념의 형성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유치원내 음률교육이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음률교육의 질에 의한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률활동과정의 질을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음악 보존개념을 연령집단과 영역별로 t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유아반 음률활동의 질은 빠르기의 보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t=2.52, df=53, p<.05$)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유치반의 음률활동의 질에

표 8. 유치원의 음악교습에 따른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

유치원의 음악교습	N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							
		리듬보존		음표의 수 보존		빠르기 보존		지속보존	
		M	(SD)	M	(SD)	M	(SD)	M	(SD)
경험없다	62	3.60	(.86)	3.53	(.94)	11.15	(2.87)	8.60	(2.15)
1년 미만	33	4.24	(1.23)	3.91	(1.04)	12.33	(2.95)	10.09	(2.47)
1년 이상	22	4.09	(1.27)	4.50	(1.06)	13.14	(2.62)	11.00	(2.45)
		F=4.62*		F=7.95***		F=4.63*		F=10.53***	

* $p<.05$ ** $p<.01$ *** $p<.001$

표 9. 음악교습에 의한 음악적 보존개념의 빈도 및 백분율

보존의 종류	보존의 여부	음악교습				χ^2
		전혀없다	1년 이내	1년이상	계	
리듬	보존	3(2.6)	2(1.7)	5(4.3)	10(8.5)	11.85*
	과도기	26(22.2)	21(17.9)	8(6.8)	55(47.0)	
	비보존	33(28.2)	10(8.5)	9(7.7)	52(44.4)	
음표의 수	보존	2(1.7)	3(2.6)	5(4.3)	10(8.5)	14.08**
	과도기	26(22.2)	18(15.4)	13(11.1)	57(48.7)	
	비보존	34(29.1)	12(10.3)	4(3.4)	50(42.7)	
빠르기	보존	7(6.0)	6(5.1)	6(5.1)	19(16.2)	4.40
	과도기	19(16.2)	11(9.4)	8(6.8)	38(32.5)	
	비보존	36(30.8)	16(13.7)	8(6.8)	60(51.3)	
지속	보존	1(.9)	2(1.7)	5(4.3)	8(6.8)	17.80***
	과도기	22(18.8)	18(15.4)	11(9.4)	51(43.6)	
	비보존	39(33.3)	13(11.1)	6(5.1)	58(49.6)	

괄호밖(N), 괄호안(%), *p<.05 **p<.01 ***p<.001

표 10. 음률교육과정의 질에 따른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

음률교육 과정의 질	N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							
		리듬보존		음표의 수 보존		빠르기 보존		지속보존	
		M	(SD)	M	(SD)	M	(SD)	M	(SD)
유아반-상	25	3.48	(.65)	3.44	(.94)	10.76	(2.79)	8.40	(2.08)
유아반-하	30	3.87	(1.01)	3.50	(1.04)	12.67	(2.81)	8.67	(2.44)
		t=1.65		t=.22		t=2.52*		t=.43	
유치반-상	32	3.78	(.94)	3.94	(.94)	11.06	(2.87)	10.21	(2.37)
유치반-하	30	4.10	(1.16)	4.33	(1.04)	12.80	(2.95)	10.37	(2.46)
		t=1.19		t=1.58		t=2.39*		t=.24	

*p<.05 **p<.01 ***p<.001

따른 음악보존 개념의 발달도 빠르기의 보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t=2.39, df=60, p<.05)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연령이 통제되었을 경우 음률교육활동의 질이 우수할수록 유아의 음악 보존개념은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빠르기의 보존개념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령집단별 음률교육의 질의 영향력을 음악 보존개념의 형성비율과 관련시켜 자세히 살펴본 결과가 다음의 표 11과 12에 나타나 있다. 표 11에서 보여주듯이 유아반의 음률교육의 질에 의한

영역별 음악 보존개념의 형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리듬의 보존에서 음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의 유아반 유아의 5.5%가 빠르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리듬이 같음을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에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의 유아는 0%로 나타났다. 음표의 수 보존의 경우에는 두 음률집단 모두에서 1.8%의 유아가 한 마디 안에서 음표의 수가 빠르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같다는 것을 개념화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음률교육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빠르기의 보존에서는 음

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의 유아 12.7%와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의 유아 1.8%가 빠르기의 보존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음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의 16.4% 유아와 음률교육이 낮은 집단의 41.8% 유아가 비보존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음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에서의 유아의 빠르기 보존개념의 형성비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음률교육의 질이 빠르기 보존의 형성비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

었다. 지속 보존개념의 경우에는 양쪽 집단의 1.8% 유아가 보존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표 12에서 보여주듯이, 영역별 음악 보존개념을 유치반의 음률교육의 질에 의한 형성비율로 보면 리듬의 보존에서 음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의 유아반 유아의 8.1%가 빠르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리듬이 같음을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에,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의 유아는 3.2%로 나타났다. 음표의 수 보존의 경우에는 음률교육의

표 11. 유아반 음률교육과정의 질에 의한 음악 보존개념의 빈도 및 백분율

보존의 종류	보존의 여부	음률교육의 질			
		유아반-하	유아반-상	계	χ^2
리듬	보존	0(0.0)	3(5.5)	3(5.2)	2.64
	과도기	12(21.8)	13(23.6)	25(45.5)	
	비보존	13(23.6)	14(25.5)	27(49.1)	
음표의 수	보존	1(1.8)	1(1.8)	2(3.6)	.02
	과도기	10(18.2)	12(21.8)	22(40.0)	
	비보존	14(25.5)	17(30.9)	31(56.4)	
빠르기	보존	1(1.8)	7(12.7)	8(14.5)	7.71*
	과도기	8(14.5)	14(25.5)	22(40.0)	
	비보존	16(29.1)	9(16.4)	23(45.5)	
지속	보존	1(1.8)	1(1.8)	2(3.6)	3.39
	과도기	5(9.1)	13(23.6)	18(32.7)	
	비보존	19(34.5)	16(29.1)	35(63.6)	

괄호밖(N) 괄호안(%),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유치반 음률교육과정의 질에 의한 음악 보존개념의 빈도 및 백분율

보존의 종류	보존의 여부	음률교육의 질			
		유치반-하	유치반-상	계	χ^2
리듬	보존	2(3.2)	5(8.1)	7(11.3)	3.32
	과도기	14(22.6)	16(25.8)	30(48.4)	
	비보존	16(25.8)	9(14.5)	25(40.3)	
음표의 수	보존	3(4.8)	5(8.1)	8(12.9)	3.27
	과도기	16(25.8)	19(30.6)	35(56.5)	
	비보존	13(21.0)	6(9.7)	19(30.6)	
빠르기	보존	2(3.2)	9(14.5)	11(17.7)	8.22**
	과도기	7(11.3)	9(14.5)	16(25.8)	
	비보존	23(37.1)	12(19.4)	35(56.5)	
지속	보존	2(3.2)	4(6.5)	6(9.7)	1.02
	과도기	17(27.4)	16(25.8)	33(53.2)	
	비보존	13(21.0)	10(16.1)	23(37.1)	

괄호밖(N) 괄호안(%), * $p < .05$ ** $p < .01$ *** $p < .001$

질이 높은 집단의 8.1% 유아가 한 마디 안에서의 음표의 수가 빠르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같다는 것을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에,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의 4.8%가 음표의 수 보존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률교육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빠르기의 보존에서는 음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의 유아 14.5%,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의 유아 3.2%가 빠르기의 보존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지속 보존의 경우에는 음률교육의 질이 높은 집단의 6.5% 유아가 보존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음률교육의 질이 낮은 집단의 경우 3.2% 유아가 지속의 보존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음악 보존개념의 형성비율과 음률교육의 질에 의한 영향력을 χ^2 검증한 결과, 표 11과 12에서와 같이 유아반과 유치반의 경우 모두에서 음률교육의 질이 빠르기 보존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5~7세 유아들의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유치원의 음악교습과 유치원내 음률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에 비추어 내린 전체 결론은 유치원의 음악교습을 많이 받고 유치원내 음률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전체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이 발달되며 음악교습과 음률교육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음악교습과 음률교육이 유아의 영역별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집단 별로 나누어 내린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음악교습은 유아반 유아의 음악능력중 울동익히기, 악기다루기, 음악적 창의성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반 유아의 음악능력중 노래부르기, 울동익히기, 음악적 창의성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직접적인 음악경험을 유도하는 음악교습은 유아의 음악능력의 영역에 따라 변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지 음악교습의 교육효과만을 검증했을 뿐으로 유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음악교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이러한 변인들이 음악교습의 지도과정에서 유아의 음악능력에 어떻게 변별적으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음률교육과정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유아의 음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률교육의 양적인 면은 전체 음률활동의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적인 음률활동 영역별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여주어 음률활동의 내용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음률교육과정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반 유아의 듣기능력, 유치반 유아의 울동익히기, 악기다루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유아중심의 음률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집단에 속할수록 유아의 듣기능력과 울동익히기, 악기다루기 능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노래부르기와 음악적 창의성은 향상되지 않았다.

세째, 유치원의 음악교습은 유아의 모든 영역의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할 수 있는 유치원의 음악교습 과정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네째, 음률교육의 질은 유아의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빠르기 보존과 빠르기 보존개념의 형성비율에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유치원내 전체 음률교육 활동에서 노래부르기 비율이 40%를 훨씬 넘어 우리나라 음률교육이 노래부르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음악적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동작교육이나 신체를 이용한 음률활동은 전체의 10% 정도에 머물러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의 음악능력이 더욱 균형있게 발달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음악적 표현을 강조한 활동간의 균형있는 음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 보존개념의 형성이 과도기에 있는 유아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한 효과적인 음률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재삼 알 수 있었다. 특히 음률활동과정의 질이 음악능력과 음악 보존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현아(1990)의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다양한 음률활동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이만수(1991)의 연구에서와 같은 교사의 질문유형에 의한 음악 보존개념의 발달에 관한 실험연구와 음률활동 교수법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미숙(1981). 유아 음악지도에 관한 연구 : Kodály와 Orff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권덕원(1987). 음악교육에 있어서 개념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성환(1982).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한국과 미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순미(1991). 우리나라 유치원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애경(1984). MMCP 음악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영주(1982). 유치원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영희(1982). 유아의 기초적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은호(1980). Carl Orff와 Zoltan Kodály 음악지도법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동순(1981). 영·유아교육의 비결. 서울 : 과학영재개발협회.
- 10) 성경희(1984). 포괄적인 음악교육 : 음악교육의 새 방향. 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연구 4, 102.
- 11) 유덕희(1983). 음악교육론. 서울 : 개문사.
- 12) 유애열(1985).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과 음악적 보존개념 발달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강옥(1977). 조기 음악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경옥(1988). 유아·아동의 리듬교육에 관한 고찰. 음악교육연구회. 음악교육연구 7, 75-92.
- 15) 이기숙·김영주역(1985). 유아음악교육(M. Greenberg, Your children need music, 1979). 서울 : 교문사.
- 16) 이만수(1991).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순형·권미경(1992). 몬테소리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18) 이 영·유애열(1985).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 19) 이은혜·이기숙(1992).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 : 청산 아동문제 연구소.
- 20) 정원영(1988). J. Pigaet의 인지발달 이론과 아동의 음악적 인식발달에 관한 고찰. 음악교육 연구회. 음악교육연구 7, 55-74.
- 21) 장현아(1990). 유아 음악교육에 적절한 학습활동 개발에 관한 연구 : 4, 5, 6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조현숙(1990). 유치원 음악교육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최영숙(1985). 유치원 음악교육에 관한 실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허순희(1991). 유아 음악지도법별 음악능력 성취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홍순정(1977). 빼아제 보존개념의 음악교육에의 적용에 관한 실험 - 청음력 및 창작의 기초기능 학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1) : 95.
- 26) Andress, B.L.(1973). Music in early childhood. Washington, D.C., MENC.
- 27) Foley, E.A.(1975). Effects of training in conservation of tonal and rhythmic pattern on second grade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3(4), 240-248.
- 28) Garretson, R.L.(1976). Music in childhood education(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29) Lorton, J.W. & Walley, B.L.(1979).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 D. Van Nostrand Company.
- 30) Nye, V.(1975). Music for young children. Dubu-

- que Iowa, W.M.C. Brown Company Publishers.
- 31) Petzold, R.G.(1969). Auditory perception by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7.
- 32) Pflederer, M.R.(1964). The response of children to musical tasks embodying Piaget's principle of conser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2, 251-268.
- 33) Suzuki, S.(1973). *The Suzuki Concept*. Berkley : Diablo Press.
- 34) Zimmerman, M.P. & Sechrest, L.(1970). Brief focused instructions and musical concep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 25-36.